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 장성군, 10년 숙원 마침내 현실이 된다

###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설립’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포함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에 축령산 개발 포함 겹경사

장성군 관련 사업이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 두 개나 포함됐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대국민 발표에서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설립과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을 포함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공개했다.

100대 국정운영 과제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로드맵이다.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 포함됐다는 건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민선 4기 때인 2007년 전남대병원과 손잡고 대학병원 부설 형태의 전국 11곳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총괄하는 국립심혈관센터의 유지 계획을 발표했다.

장성군은 국립심혈관센터를 유지하면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편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뇌심혈관 질환의 연간 사회·경제적 추산 비용은 약 12조8,300억원이고, 흡연을·비만을 감소, 운동을 증가 등 뇌심혈관질환 위험요인 경감만으로도 연간 5,624억원,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유병률 감소로는 연간 2,788억원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나라 안팎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장성을 찾게 돼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뇌심혈관질환의 특성상 퇴원 후에도 장기간 재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기에 일반 병원보다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다. 고용 창출도 어마어마하다. 장성군은 국립심혈관센터를 유지하면 의료 및 연구 등 인력 70여명을 포함해 2,00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장성군 인구(약 4만7,000명)의 4.2%나 된다.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설립과 함께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 포함된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은 백두대간 서남권에 위치한 노령산맥(내장산~방장산~문수산~축령산)의 산림자원을 휴양·치유벨트로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 프로젝트다. 노령산맥권 지자체인 장성군과 정읍시, 부안군, 임실군, 담양군, 영광군, 고창군이 사업에 참여한다.

장성군은 90억원(예산 사업비)을 투입해 건강증진센터를 확장하고

치유숲길, 대피소, 주차장, 일광욕장, 풍욕장, 멀티플렉스센터 등을 조성하는 ‘축령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 사업을 벌인다. 장성군에는 전국 최대(779ha) 인공조림 편백숲이 조성돼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함께 함께 한국인 2대 질환으로 꼽히는 뇌심혈관 질환의 연구 및 치료에 일대 혁신을 일으킬 국립심혈관센터의 장성 설립을 군민들과 함께 자축하고 싶다”면서 “국립심혈관센터 유치는 민선 6기 행정의 최대 성과이자 장성의 미래를 바꿀 장성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라고 말했다.

유 군수는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을 통해 장성군이 축령산을 개발하게 된 데 대신 “축령산을 개발하면 그 자체로 휴양·치유를 주제로 한 관광지원일 뿐만 아니라 국립심혈관센터와 연계한 재활치료·요양 시설로도 각광을 받을 것”이라며 “장성군이 겹경사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 함평군,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준공

### 어린이놀장·갯벌탐방로·오토캠핑장 등 갖춰 관광 명소 기대

함평군은 19일 함평을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에서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돌머리해수욕장 개장식을 겸해 열린 이날 준공식엔 안병호 군수, 이윤행 군의회의장, 도·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은 국비 42억5천만원 등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해 돌머리해수욕장 일대에 해변탐방로, 갯벌탐방로, 어린이놀장, 해수놀장,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안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친서민 휴양시설을 설치하는 국책사업으로 지난 2011년 선정됐다.

1단계로 9억9천만원을 들여 길이 612m, 폭 6m의 해변탐방로를 개설했다. 소나무숲 사이로 난 탐방로를 따라 해안가를 돌며 신록을 즐길 수 있어, 소나무향을 마음껏 즐기며 물놀이엔 지친 몸을 쉴 수 있다.

2단계 사업으로 75억1천만원을 투입해 어린이 물놀이장, 해수놀장, 갯벌탐방로, 오토캠핑장을 조성했다.

4780㎡의 어린이 물놀이장은 워터버킷, 워터슬라이드 등을 갖춰 해수욕과는 다른 재미를 즐길 수 있다. 깨끗한 수질과 적당한 규모로 엑스포공원 물놀이장 못지않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7480㎡ 규모의 해수놀장은 썰물에도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바다물을 끌어와 조성한 인공풀장으로, 이용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해수를 교체한다.

바다를 향해 목재 데크로 조성된 갯벌탐방로는 길이 405m로 물이 빠지면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에서 게, 조개 등이 살아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다리마다 LED 조명을 입혀 밤이면 여러 색 같이 시시각각 변하며 다양한 색채로 밤바다를 수놓는다.

오토캠핑장은 4850㎡ 규모로 총 16면을 조성하고 취사장과 화장실을 갖췄다. 카라반 10대를 구입하기 위해 조달청과 계약체결 후 제작중이어서 9월 이후 문을 열 예정이다.

이곳 인근엔 해수찜, 주포한옥마을, 주포다목적센터 등이 있고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 10.8km 해안도로 개설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안병호 군수는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이 마무리되고 오토캠핑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면서 함평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사시설 관광객이 함평을 찾고 늘어난 관광객 덕분에 주변은 더욱 발전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개장한 돌머리해수욕장은 깨끗한 갯벌, 아름다운 낙조, 상쾌한 소나무숲이 어우러진 대표 피서지로 지난해 전국 청정해수욕장 20곳에 선정됐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숲 사이에 원두막 14동, 텐트촌 16동이 마련됐으며 샤워실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췄다.

갯벌체험, 바지락캐기, 소리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상시 개최된다.

이달 22일과 다음달 5일, 15일 오후 1시엔 정어잡기 행사도 열린다. 8월5일 저녁 8시엔 풍등에 소원을 담아 띄우는 ‘풍등 날리기’ 행사도 있을 예정이다.

돌머리해수욕장은 다음달 20일까지 운영된다.

## 보성군 득량면, ‘농촌 중심지 현장포럼’ 추진

보성군은 득량면 주민이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지역발전계획을 위한 ‘농촌중심지 현장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일 득량면사무소에서 주민 등 5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득량면 농촌중심지 1차 현장포럼을 열어 ‘협 정부의 개발정책 추진방향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20일에는 2차 현장포럼인 ‘대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현재모습과 현안문제 발굴에 대해 본격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진 지역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발전의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도입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농촌중심지 현장포럼’은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주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발굴 및 기능적 연계, 지역비전을 계획하는 새로운 방식의 회의 프로그램으로 오는 8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군은 8월 이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을 실시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공모에 선정될 경우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사업을 착수한다.

## 영광군,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영광군은 지난 18일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앞두고 관내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목포해양경비안전서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불갑면 녹산리에 위치한 영광수상레저타운 1곳으로 모터보트, 수상스키, 워터슬레드, 수상

자전거 등 수상레저사업장이 보유한 동력,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전체에 대한 기구 파손, 정상작동 여부 등 장비의 안전성 점검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시설의 안전성과 이용자 탑승전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수상레저 보험가입, 인명구조요원 배치, 안전검사 실시 여부 등 법령 준수 여부까지 확인하여 빈틈 없는 점검을 실시하였다.

영광군은 “수상레저 기구의 다양성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높아져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구례군, 지리산 산골에 산업단지행 통근버스 달린다

구례군은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으로 지난 6월까지 5천 명이 이용하는 등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고용노동부의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구례자연드림파크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45인승 버스 2대를 인차하여 1일 총 4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버스 운행을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운행할 계획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526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군내버스 경우 노선이 적고, 배차 간격도 길어 근로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미운행 지역이 많아 근로자들의 불편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의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무료상담원영"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0]에이치엔프레스 검색